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 National Museum	보 도 자 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8.(금)	담당부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실장	김유식(054-740-7530)	담 당 자	학예연구사 이용현 (054-740-7535)

고려시대의 경주는 어떠했을까?

-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 개최-

경주의 고려시대를 집중 조명하는 최초의 전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2016년 7월 12일(화)부터 9월 4일(일)까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를 개최한다. 신라의 천년왕도로 주목받는 경주의 고려시대를 조망하는 첫 전시이다.

도시경관과 지역사회를 키워드로 풀어가는 고려 오백년 경주의 역사

“경주”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신라가 멸망한 935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경주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삶을 ‘도시경관’과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국보 126호) 등 국보 3점, 보물 15점을 비롯해 모두 500여점의 문화재를 【프롤로그:경주의 탄생,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 2부 호국의 상징 황룡사,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 4부 동족사회와 무덤, 5부 경주사람들, 에필로그:고려의 동경 경주】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프롤로그에서는 경순왕의 고려 귀순으로 경주가 신라 왕경에서 고려의 지역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을 다룬다.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에서는 고려시대 경주의 행정 중심이 된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의 모습을 전시한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신라 건축물의 석재들과 고려 기와들, 「동경 굴석사(東京屈石寺)」가 새겨진 굴불사 출토 쇠북은 1183년 경주의 전 호장 이백유李伯俞와 승려 도인道人이 제작에 참여하였고 경주를 동경으로 칭했음을 보여준다. 각종 선생안先生案과 호장戶長 관련 전적은 호장과 부윤府尹의 면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전시품이다. 1182년에 세워진 효자 손시양 정려비(보물 제68호)의 입체탁본은 경주가 효행의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2부‘**호국의 상징 황룡사**’에서는 신라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가 고려시대도 경주민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여전히 호국의 상징이었음을 새롭게 조명한다. 각종 대형 기와

들과 청자 등 고려시대 황룡사 출토품들은 웅장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은 경주의 불교사원이 종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불국사 성보박물관 부지 출토 명문기와에서 고려시대 불국사가 숙박시설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대 문집자료에서는 분황사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불국사 석가탑 중수문서(국보 제126호)에서는 지역 사회가 하나되어 천재지변을 극복한 모습을, 감은사 쇄북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극복했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국보 제126호), 왕실이 발원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10(보물 959-1-1호) 등 10여점의 국보·보물이 전시된다.

4부 ‘동족사회와 무덤’에서는 경주의 고려시대 무덤군을 통해 동족집단의 무덤을 살펴본다. 물천리·화천리·검단리 등 대규모 무덤군에서 일괄로 출토된 청동 그릇과 거울, 수저, 청자 등 규범화된 부장품들이 밀도있게 소개된다. 도읍인 개경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유사한 경주 구정동 출토 쌍용구름무늬띠거울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5부 ‘경주사람들’에서는 이제현李齊賢·김부식金富軾·이의민李義旼 등 경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한다. 초상화, 문집, 비문 등으로 그들의 모습과 행적,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다. 또한 고려귀족을 상징하는 묘지명으로 귀족사회에 진입한 경주 출신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신발견 고려시대 구결, 임진왜란 이전 기록된 경주 호장 관련 기록 최초 공개

기림사 소장 자비도량참법에서 13세기 고려시대 구결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처음 공개한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한문을 읽을 때 토씨를 달아 우리말로 읽었다. 종래 고려 언어 생활을 알 수 있는 이같이 귀중한 자료는 인왕경 등 5건에 불과했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유일한 호장안인 『부사선생안府司先生案』도 처음 공개된다. 이것은 경주부 역대 호장戶長의 명단인데, 호장은 향리의 우두머리로서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1523년 처음 작성된 부사 선생안은 고려시대부터 1787년 신안新案을 작성하기까지 호장의 이름과 생년, 본관 등을 기록하였다.

최신 발굴자료, 경주 읍성 출토품과 구정동 출토 쌍용무늬청동거울 첫 공개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주 읍성 및 구정동 고려무덤 출토품이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고려시대 경주 읍성 축조에는 옛 신라 궁궐 등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얻은 석재들이 재활용되었다. 이 중 테두리에 안상眼象을 새겨 화면 틀처럼 삼고 가운데에 인물처럼 생긴 상을 조각한 통일신라기 부조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은 중국 남북조시대 북위北魏(386~534) 말부터 동위東魏(534~550)를 거쳐 북제北齊(550~577)에 이르는 6세기 불교미술에서 불비상佛碑像의 하단에 새겨진 풍신왕風神王과 유사하다. 또한 서쪽 돈황 막고굴 중에서 서위西魏(535~556) 때 지어진 제285굴과 당唐

(618~907) 초기인 7세기의 제329굴 천정 벽화에도 두 손으로 천을 쥐고 뛰는 역동적인 자세의 풍신風神이 그려져 있어 이와 비교된다. 경북대학교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울산 출토 9세기 작 사암제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중대석에 이와 비슷한 신장상이 새겨져 있으나, 신라에서는 이 소재 자체가 흔치 않아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신자료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출토된 경주 구정동 쌍용무늬구름무늬띠거울雙龍文雲文帶鏡은 고려의 도읍인 개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거울에는 포장재로 사용된 대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

다양한 영상과 충실한 역사 자료 제공

이 밖에 효자의 마을로 선양한 황남동 소재 손시양 효행정려비 일명 효자리비孝子里碑(보물 68호)의 입체탁본, 고려시대 경주 역사를 집성한 역사 연표와 지도, 영상과 삽화가 전시 이해를 돕는다. 무료 관람으로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 언론공개회 7월 11일 오후 2시, 개막행사는 오후 4시에 개최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용현(☎ 054-740-7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1 “동경 굴석사”가 새겨진 쇠북



그림 2 호장 김지원의 딸 묘지명



그림 1-2 동경東京 명문 세부



사진3. 부사선생안[1253년] (1부)



사진 4-1 경주 읍성 건설에 재활용된 신라 석조 부조물 “손에 주머니를 쥐고 뛰는 상”[신라, 경주시] (1부)



사진 4-2 손에 주머니를 쥐고 뛰는 상 탁본



사진 5-1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13세기,기림사] (3부)



사진 6 청동팔각탑[고려, 동국대박물관](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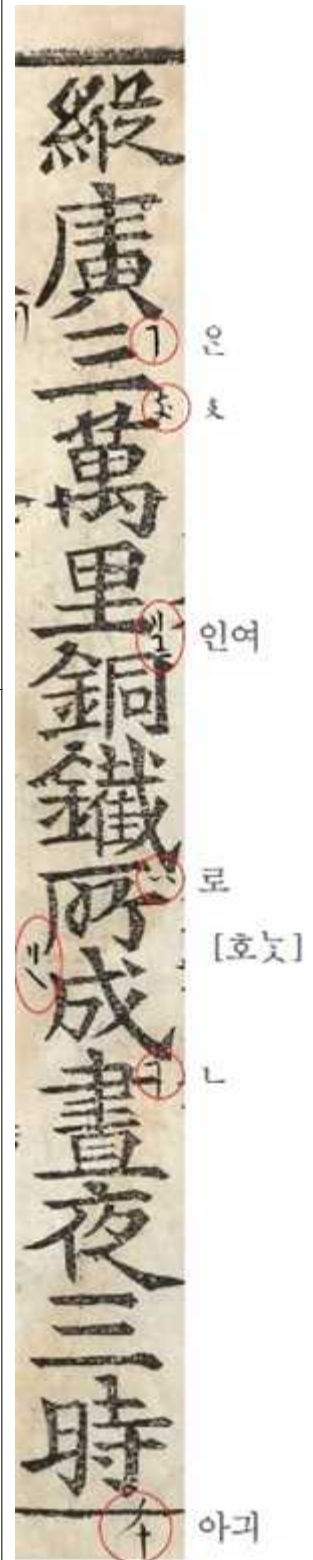


그림 5-2. 구결 세부



사진7 고려왕실이 발원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210(보물 959-1-1호)[1348년 고려, 기림사](3부)



사진8 불국사석가탑중수기(국보 126호)[1024년 고려, 불국사](3부)



사진9 물천리 출토 용모양 청동제품[고려](4부)



사진 10 화천리 출토 청자[고려](4부)



그림 11 경주 구정동 고려무덤 출토 쌍용무늬구름무늬띠거울[고려, 영남문화재연구원] (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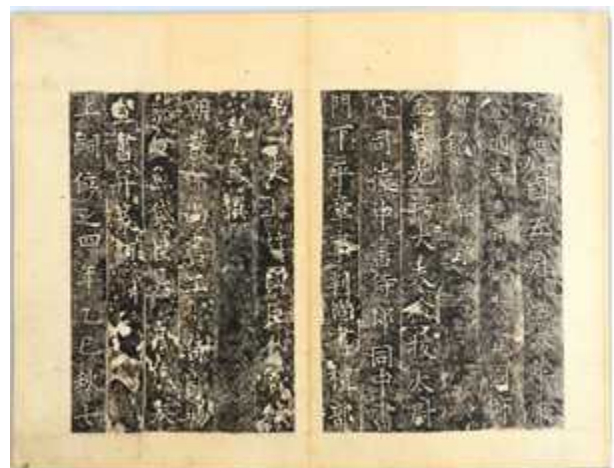


사진 12 김부식이 지은 영통사대각국사비의 탁본 [1125년](5부)



사진 13 이제현 초상[개인소장, 조선 18세기 후반](5부)



그림 14 전시 포스터



그림 15. 고려시대의 경주 홍보물